



호수강산

2

2026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6 ISSN 1727-9062

루계 제438호 월간

2026년 2월호

표지: 조국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동포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동포들이 조국의 소식을 전하는 잡지를 보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 김성철

3 ||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린 선물

8 || 금속공예 《조라》

9 ||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위에서

10 || 경공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려

일화

12 || 위민헌신의 나날에

수기

13 || 맏누이라는 부름을 대할 때면

14 || 경공업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보여준 전시회들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6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18 || 축복받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인상기

19 || 활기있고 명랑하고 대바르게

19 || 소원을 이룬 설날

20 || 억세게 이어가는 애국의 바통

인상기

23 || 자랑하고싶은 고국

23 || 《끝나지 않았으면…》



애국의 냄새를 이어

24 || 마음속의 스승

고향소식

26 || 새 보금자리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

30 || 능력이 큰 건재생산기지

32 || 과학기술을 앞세워

34 || 생산장성의 비결

36 || 독특한 실내건축장식으로

38 || 대성산기술의 자연과학지식보급기지

42 || 다양한 소조활동으로

44 || 수요높은 《신진》의료기구들

46 || 박사부부

48 || 누구나 즐겨 찾는 사진관

50 ||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6)

53 ||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설명절풍습

54 || 고려무역항 벽란도

지명 유래

55 || 평안남도 덕천시

전설

56 || 쑹떡에 깃든 사연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올련사밀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2001년 5월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쓰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나라에서는 백두의 혁명전통이 세월이 흐를수록 련면히 계승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시는 과정에 마련하신 주체의 혁명 전통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와 불굴의 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비롯하여 실천에서 그 진리성이 뚜렷이 확증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이 집대성되어 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고 하여도 혁사책의
갈피에나 남아있으면 그것은 혁명을 추동하는
간의력한 물기로 될수 없다

수령의 령도밑에 창조된 고귀한 전통이 세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때만이 혁명은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법이다.

일찌기 혁명전통계승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루 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옳고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풍찬로숙하시면서 적들과 치렬한 전투를 벌리시고 간고한 행군길을 이어가신 고귀한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1956년 6월 평양제1중학교를 다니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이끄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 있는 로정을 따라 직접 행군도 해보면서 그이의 령도 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싸워서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는가 하는것을 배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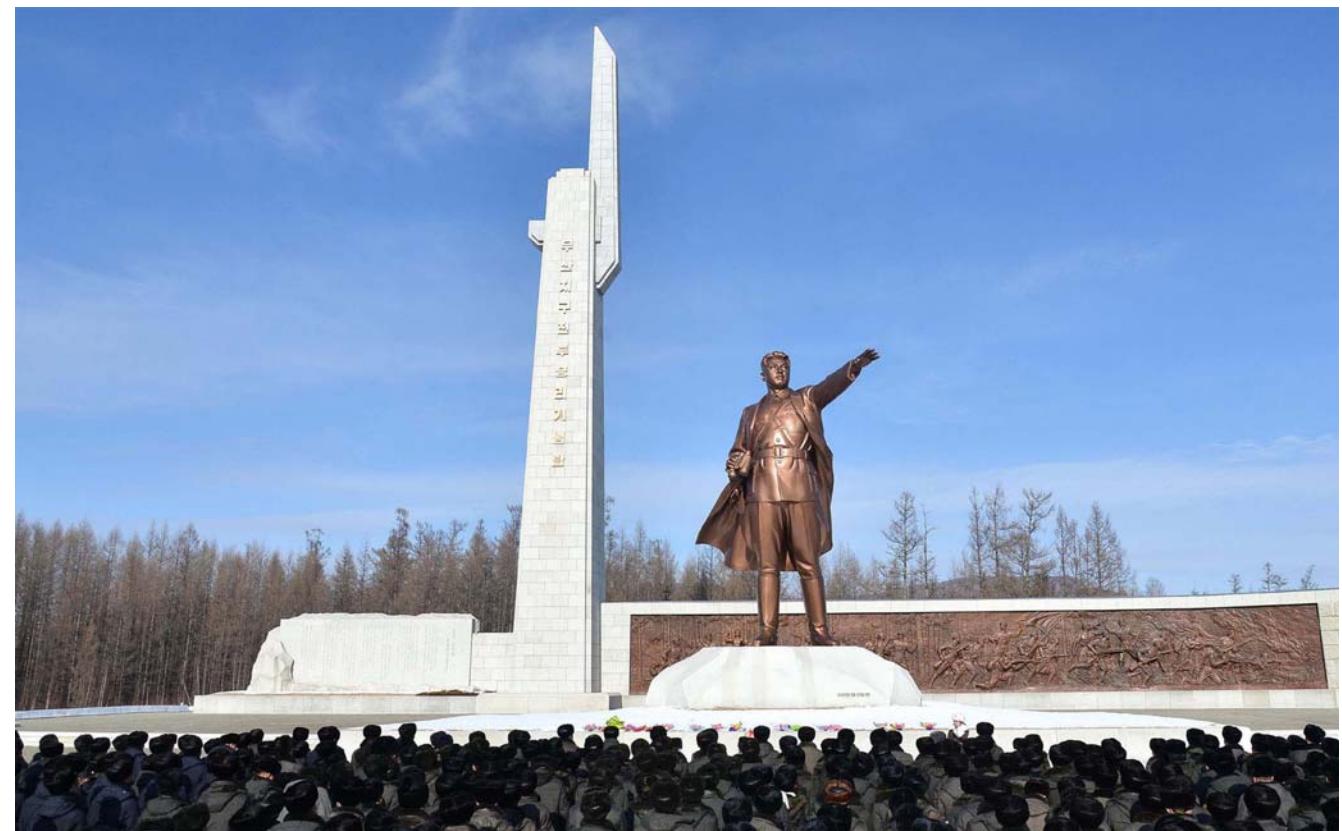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로정을 개척하심으로써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조직적인 답사가 시작되고 답사를 통한 혁명
전통교양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일찍부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려 온 나라를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을 보다 징공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이미 1960년대에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여 전사회적으로 항일혁명 선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따라 배워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신 그이께서는 1970년대에 삼지연지구의



▲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백두산지구의 대홍단등판에 1971년 5월에 세웠던것을 2002년 5월에 새롭게 건립하여 제막

◀ 보진보전투승리기념탑
1967년 량강도 혜산시 중심부에 세운 대기념비

혁명전적지건설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1980년대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비롯하여 전국적판도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유적, 유물들의 조사발굴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유서깊은 곳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지고 대기념비들이 웅장하게 건립 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수많은 구호문현들이 발굴고증되었다.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체계화하는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전국도처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꾸려져 온 나라가 말그대로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되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쥐버리면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흘려 이룩해놓은 고귀한 전취물을 다 말아먹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확고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류례없이 간고했던 지난 세기 1990년대에도 온 나라 인민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자욱은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져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어 백두의 혁명전통은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굳건히 계승될수 있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꿋꿋이 계승되고 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군로자들파 청년학생들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 백두의 혁명전구를 찾으시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더욱 분발승화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온 나라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열풍이 일고있다.

답사자들은 항일의 전구들을 봤아보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고 계승발전되고있는가를 체감하고있다.

위대한 전통을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틀어쥐고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나라는 무궁토록 번영 할것이다.

글 엄향십

2025년 2월 촬영

금속공예 《조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재중동포 황철훈이 드린 선물

2005년 10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위에서

1948년 2월 8일은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건군절이지만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오늘 그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조선인민군의 값비싼 승리를 떠나 우리 국가의 국력과 국위,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창건의 그날로부터 근 80년간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행로에 특출한 역할로서 승리와 영광의 보폭을 뚜렷이 새겨왔다.

조선인민군은 창건후 나라의 새 조선건설을 굳건히 보위하였을뿐 아니라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미중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였으며 혁명의 년대마다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1990년대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시기에 적대 세력들을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며 정의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여온것이 우리 인민군대이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고 있다.

각종 공격 및 방어수단, 억제수단들을 겸비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화성포계렬의 새로운 초강력공격수단을 비롯한 각종 전략무기들의 련이은 출현은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능히 대응할수 있는 첨단화, 정예화된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파시로 된다.

조선인민군은 국권수호에서뿐 아니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언제나 기수,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당에서 일단 결심하면 즉시에 집행하고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해제끼는것이 인민군군인들의 투철한 복무정신이다.

최근년간에만도 재해복구, 수도와 지방의 대건설에 이르기까지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이 깃들지 않은 곳이란 없다.

새로운 평양변영기와 더불어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와 송화거리, 화성거리 등 인민의 새 거리들파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이며 강동종합온실농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고 혹심한 재난을 당했던 큰물피해지역이 사회주의리상촌들로 전변된것은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철의 기지들과 탄광, 광산들, 철길들과 도로들, 사회주의전야들과 판개물길, 간석지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인민군군인들의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져 있다.

정녕 이 모든 성과들에는 당의 령도에 충실한 우리 인민군대의 담대한 영웅성과 강인한 기개, 불가능을 모르는 무비의 혁명정신이 슴배여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8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없이 영광스러운 전격로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군대를 전위에 세울것이며 혁명무력의 충직함과 강용함에 지지하여 래일을 당겨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은 어제도 그려하였던것처럼 오늘도 자기의 불멸할 명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뾰치고 있다.

글 김성경

경공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이 힘있게
다그쳐지는 속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

특히 나라의 경공업이 발전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시기에 열리여 인민들에게 커다란 궁지와
차부심을 불러일으킨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
발전-2025》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옷감류, 신발류, 가정용전기제품, 문화일용품,
식료품, 가구 등 전시된 600여종에 6만 8 000여
점의 제품들은 외형은 물론 용도와 질적수준에
있어서도 나무랄데가 없어 사람들속에서 긍정적
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라오스정부 부수상은
《우리 대표단이 전시회장을 참관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기에 전시된 생산품들은 모
두 조선의 경제장성의 뚜렷한 파시이다.》라고
하였다.

나라의 경공업발전의 로정을 돌이켜볼수록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3월에 열리였던 전국
경공업대회에 대한 감회깊은 추억이 갈마든다.

당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첨예하고도 긴장한 정세가 흐르고있던 때 열리
였다.

바로 이러한 때 인민생활향상에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시려는 드림없는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대회
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대회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경공업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그후 나라의 경공
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로고를 돌이켜볼 때마다 인민들
누구나 제일 뜨겁게 새겨보군 하는 제품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소나무》책가방이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 현지지도의 길에서 아이
들이 한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까지 들고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신 그이께서는 경공업부문의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아이들에게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자고
하시였다. 그때부터 배낭식가방생산토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가방천생산기지를,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 샤크생산공정을,
각 도에 학생가방생산기지를 꾸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그이이시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이의 다심하신 사랑
은 가방에만 머물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든 책가방에 우리가 만든 학습장과 학용품을
넣어 메워주시기 위한 그이의 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민들레학습장공장을 비롯한 여러
학용품생산기지가 일떠섰고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용품이 산골
마을과 섬마을의 아이들에게까지 안겨지게
되었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로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게 하시려 그이께서 찾고찾으신
공장들은 그 얼마나지 모른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평양양말공장, 삼지연들쭉음료공장, 김정숙평양
제사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
기초식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
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이렇게 이어가신 려정에는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여 그곳 일군들의 안목도 티워주시고 현대
화의 목표도 제시해주신 이야기들과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의 설비현대화에서 주체화비중을 높이
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여 공장이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된 이야기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신 그날 우리 화장품의
향내가 얼마나 오래가는가를 직접 알아도 보시
였고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한 양말을 자신께서
몸소 신어보시면서 얼마나 질긴가, 부족점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확인해보시고 개선대책도
세워주신 그이이시였다.

하나의 소비품을 만들어도 인민이 선호하고 인
민의 호평을 받을수 있게,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경공업부문에 제시하신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기준이였다. 이 기준에서는
한치의 에누리도 없으시였다.

하기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그이께서는 소비품의 질은 어떠하든

생산량에만 치중하는것은 인민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당정책집행에 대한 요령주의적인 태도로
서 당과 인민을 속이는 행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인민들이 어떤 소비
품을 더 찾는가, 그 수요를 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늘 마음쓰시며 그이께서는 그야말
로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하는 물음에 정말 좋아합
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시면 만시름을 잊고 기뻐하
시는 그이이시였다.

그 뜻에 떠발들려 《매봉산》구두, 《철쭉》
양말, 《봄향기》화장품과 같이 인민들이 즐겨
찾는 제품들이 태여나게 되었고 나라의 경공업이
오늘처럼 힘차게 도약할수 있게 되였다.

지금 우리의 경공업은 그이께서 펼치신 지방발
전의 거창한 투쟁강령에 의해 해마다 20개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고 인민들이 선호하
는 지방특색의 제품들이 생산되어 그 발전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있다.

참으로 인민의 생활이 날로 문명해지고 윤택
해질수 있은것은 인민생활향상과 국가의 전면
적부흥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안아
온 빛나는 결실이다.

글 김지성

정치용어해설

멸사복무정신

멸사복무정신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고상

한 정신으로서 일군들이 지녀야 할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가장 중
고한 정신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
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
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은
인민들의 생활상에로를 풀어주기 위
하여 자기의 온넋을 깡그리 바치려
는 결심이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하기 위하여 지혜
와 열정을 쏟아부으려는 각오이다.

* * *

위민현신의 나날에

배낭식가방이 전하는 사연
2016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오늘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꾸려놓은 가방천생산공정과 이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천으로 만든 학생가방들을 보자고 하시였다.

잠시 공장을 둘러보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학생들이 리용할 배낭식가방을 만들것을 결심하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배낭식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방천생산공정을 꾸리도록 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여 학생가방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으며 고급중학교 남학생용 가방을 드시고 몸소 예보기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확실히 배낭식가방이 좋다고, 배낭식가방을 메고다니면 편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가방멜끈의 어깨부분에 해면을 좀더 넣어야 한다고 다심히 이르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천으로 만든 학생가방들을 보니 대단히 만족하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 가방들을 메고 웃고 떠들며 학교로 오고갈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흐뭇하기 그지없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각 도들에 학생가방생산기지를 꾸리고 배낭식가방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더없는 믿음을 안겨주시며

2018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수십 가지의 새 제품들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조성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해주시였으며 듣던바대로 력사가 오랜 공장이 다르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봄향기》화장품에 대한 인민들의 호평이 대단하고 수요가 높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고 《은하수》화장품과 대비적으로 분석하여보

면서 제품의 질을 새롭게 개신하고 품종을 늘여 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화장품산업에서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이 쌍기둥이라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지지한다고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위해선라면

2025년 1월 어느날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식료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공장운영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음료생산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생산된 제품들을 보아주시다가 단물병에서 한동안 시선을 멈추시였다. 음료의 미세한 량적 차이를 알아보시였던 것이다.

일군들에게 앞으로 레이자수준기로 단물병들의 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병마개 포장과 단물상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였다.

그리시고는 공장에서 생산한 파일단물의 맛까지 보시고 맛이 괜찮다고 하시였다. 기름생산실과 파자생산실에도 들리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콩기름의 냄새와 투명도를 가늠해보시며 치하해주시였고 파자로를 거쳐 나오는 파자의 맛도 헤아려보시였다.

이날 군일용품공장에도 들리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솔잎향을 넣어 만든 빨래비누의 냄새까지 맡아보시며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이 비누를 자신께서 꼭 써보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쑥향과 박하향을 가지고도 비누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 * *

말누이라는 부름을 대할 때면

- 경공업성 국장 빈명철의 수기 -



우리 경공업부문 일군들에게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민의 어머니라면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말누이가 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수고를 하나라도 덜기 위해 제일 애쓰는 사람이 다름아닌 말누이입니다.

이 부름을 되새길수록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말누이의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입고 쓰는 것이라면 그것이 크든작든 만사를 제쳐놓고 중시 하시며 나라의 정사를론하는 중요회의들에서 인민 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당 제8차대회 이후에 진행된 당회의들만 놓고 보아도 매번 핵심적인 내용으로 토의된것은 인민 생활과 관련한 문제였고 그때마다 그이께서 거듭 당부하시는것도 소비품의 질문제였습니다.

인민소비품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개선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며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수많은 사진파 도안참고자료들, 제품견본들도 몸소 보내 주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우리 경공업발전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겠는가, 무엇을 더해줄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늘 마음쓰는 어머니처럼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로고를 바쳐가고계십니다.

지금도 나는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어느날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여 사출작업반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수지바닥사출기로 다가가시여 남자구두창 한개를 손에 드시였습니다. 그 질을 가늠해보시려는듯 한동안 구두창을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작업탁 웃면에 그것을 밀어보시는것이였습니다.

모두가 영문을 알수 없어하는데 그이께서는 수지바닥사출기로 생산하고있는 구두창을 보니 바닥문양의 깊이가 너무 얕은것같다고 하시며 이런 구두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다니면 미끄러질것같다고 하시였습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공장일군에게 시선을 주시며 바닥문양의 깊이는 계절과 용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바닥문양형태와 자재보장정형에 대해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자신께서는 구두생산에서 향보다 질을 더 중시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을 수차에 걸쳐 찾으시여 《매봉산》구두가 인민들이 즐겨 찾는 질높은 상품이 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하여 오늘 《매봉산》구두는 봄철과 가을철에 진행되는 전국적인 신발전시회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으며 누구나 먼저 찾는 신발로 되였습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지난 10여년간 평양화장품공장, 평양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하여 100여개의 경공업공장들이 개건되였고 많은 공장들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였습니다.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새 제품들이 개발되고 수많은 제품들이 12월15일 품질메달을 수여받거나 2월2일 제품으로 등록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공업부문 일군들이 자기 동생들을 생각하고 제 집식솔을 위하는 말누이의 심정으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들에게 한가지 소비품을 안겨주어도, 백가지를 주어도 최상급으로 만들 어주기 위해 고심하며 인민이 만족해 할 때까지 그 결실을 책임지는 인민의 충복이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

경공업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보여준 전시회들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5》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25



봄철피복전시회-2025



전국식료품전시회-2025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인민 생활과 관련한 많은 전시회와 품평회가 진행되었다.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25, 봄철피복전시회-2025, 전국식료품전시회-2025, 20개 시, 군지방공업공장들의 제품품평회, 제16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5》…

매 전시회들과 품평회는 새 제품개발과 함께 질을 높이는 데서 전진이 이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시회들에 출품된 제품들의 종수와 가지수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25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90종, 경공업제품전시회에는 2023년에 비하여 5만여점이나 더 출품되었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5》만 놓고보아도 정보산업성에서 전시회에 75종에 700여점의 가정용전기제품을 출품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다종다양한 가정용전기제품들을 내놓았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내놓은 텁성양복천을 비롯한 여

러 가지 옷감, 잠업비단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다양한 문양의 비단천, 국가과학원 화학섬유연구소에서 만든 리오셀섬유제품,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에서 파수지를 원료로 하여 만든 데트론솜이불 등은 입는 문제 해결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대동강맥주공장에서 밀맥주와 생호프향이 독특한 IPA맥주, 메밀과 단나무열매즙을 리용하여 만든 건강맥주 등 10여 가지의 새로운 맥주를, 대동강금옥죽석밥공장에서 즉석밥, 즉석국수, 마까로니, 스빠게띠, 각종 가공쌀, 여러 종류의 낱알편튀기를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가지수도 다양하고 포장도 멋있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시회들과 품평회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지방공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제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20개 시, 군에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의 제품품평회가 지난해 4월에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생산을 시작한지 2~3달밖에 안되는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밀

을 주원료로 하는 기초식품과 당파류들, 수산물가공품 등을 내놓았는데 질적지표에 있어서 중앙의 경공업제품들과 다를바 없었다. 이밖에도 빨래비누, 수지일용품, 가구, 퍼복제품들도 전시되었는데 20여종에 430여 가지가 품평회에 출품되었다.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5》에도 성천군식료공장에서 만든 밤단졸임과 밤정파를 비롯한 밤가공제품들, 김화군의 깨고추장, 온천군과 신포시의 수산물가공품들, 이천군의 쪽가래빨래비누, 고산군, 재령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옷공장들에서 생산한 새로운 형태의 퍼복제품들이 전시되었다.

그전에 비해 종수에서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은 상표만 아니라면 어느것이 중앙의 제품이고 지방의 제품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제품들이 지방에서 꽝꽝 쏟아져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정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펼쳐주신 지방변혁의 새시대에 사는 희열을 느낀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신의주화장품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숙천군옷공장, 성천군식료공장, 원산신발공장 등에서는 전시회들을 통하여 인민들의 평가를 종합하고 다른 공장들과의 경험교환, 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리였다.

뿐만 아니라 새 제품개발과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발하고 있다.

글 김대철
사진 조선중앙통신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전호에서 계속)

반유격구라는것이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1930년대 후반기 압록강연안에 나와서 백두산일대를 개척할 때에도 우리는 혁명군이 주둔하는 곳들에만 밀영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유격구로 만들어놓았다. 적백을 가리지 않고 군중들 속에 혁명조직을 박고 거기에 일군들을 파견하였다. 우리는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지 않고 적들이 이 지구를 주목하면 저 지구로 옮겨앉고 저 지구를 주목하면 또 다른 지구로 옮겨가곤 하였다. 그 사품에 정동철, 리훈, 리주의(리취)과 같은 애국구장, 애국백가장, 애국십가장, 애국면장, 애국순사, 애국자위단원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는 그때 적의 하부말단통치기관들에 똑똑한 사람들과 공작원으로 많이 박아넣었다. 우리가 파견하지 않은 적지 않은 하부말단관리들까지도 혁명을 지지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들은 낮에는 만주국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열성을 부리는척 하였지만 해가 떨어지면 혁명군의 길안내도 하고 낮에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혁명군공작원들도 만나고 혁명군에 보낼 원호물자수집도 하였다. 동만과 국내에 창설된 반유격구들은 해방지구의 군대와 인민들을 보호하며 거기에 수립된 인민의 정권과 민주주의적시책의 열매들을 보호하는 믿음직한 위성들로 되었다.

완전유격구주변의 넓은 지역이 반유격구로 전환된 다음부터 항일유격대는 적구깊이 침투하여 군중을 혁명화하고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조직들과 각종 대중조직들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항일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소극적인 방어전으로부터 적극적인 공격전으로 이행할수 있었다. 항일전쟁을 주동적인 공격작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는 적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전을 타파하고 유격구생활에서 가장 큰 꼴치거리였던 식량문제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반유격구의 건설은 적백구역의 설정으로써 많은 군중을 적의 편으로 밀어던지던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왕청지방의 반유격구들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라자구와 량수천자였다.

라자구를 반유격구로 건설하는데서는 리팡의 공로가 컸다. 리팡은 라자구에 파견되어 반일부대공작도 하고 독립군출신들파의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발을 불일수 있는 기틀을 튼튼히 마련하여놓았다.

라자구는 1920년대초부터 리동휘일파가 독립운동의 주요기지로 개척한 고장이였다. 그때 리동휘를 따라다니며 독립군운동에 관계했던 령감들이 라자구지방을 쥐락펴락하고 있었기때문에 리팡은 그들을 통하여 이 지방인민들을 혁명화할 수 있었다.

라자구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려고 그때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이 이 지방에 많이 파견되어갔다. 그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대오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라자구를 혁명화하는데서 큰 공헌을 한 최정화도 거기서 희생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지대장이었던 박길송과 최광은 그 당시 라자구에서 지하공작을 하였다.

적들이 이 고장에 협화회나 협조회와 같은 악질적인 반동단체들을 조직하여 혁명세력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였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일회와 같은 큰 그릇의 대중조직들을 만들어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웠다. 라자구는 왕청의 혁명군중을 먹여살리는 식량창고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소왕청유격구에서는 식량사정이 곤난할 때마다 라자구혁명조직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면 라자구에서 혁명조직성원들이 십리평 돌문안까지 쌀을 등집으로 지고 와서 왕청사람들에게 인계해주었다. 적들이 라자구를 점령한 조건에서도 해방지구들에서는 계속 그 고장의 쌀을 가져다먹었다. 유격구가 해산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이 북만원정을 떠난 1935년 하반기부터 왕청현내의 혁명가들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라자구의 식량을 먹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의 《토벌》을 피하여 한동안 라자구 서산에 가있던 일부 혁명군중과 왕청3중대 군인들도 이 지방인민들이 가져다주는 식량을 소비하면서 1935년 가을과 겨울을 보냈다.

라자구가 이처럼 왕청혁명가들의 식량공급소와도 같은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낼수 있은것은 거기가 원래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기장밥을 해먹인다는 비옥한 곡창지대라는데도 있었지만 그 지방

에 혁명조직들이 많이 들어가 박하고 그 조직들이 일상적으로 대중교양을 잘하였기때문이였다.

라자구의 백호장 김룡운은 만주국이 신임하는 말단행정심부름군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조직원이였다. 그는 백호장이라는 합법적지위를 이용하여 혁명가들에 대한 방조를 많이 주었다.

적들은 유격대공작원들의 성시침투를 막고 인민들이 혁명군과 내통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반출을 가혹하게 통제하는 한편 청년들을 도시경비에 상시적으로 동원시켜 출입자들을 엄중히 단속하게 하였다. 경비에 동원되는 청년들에게는 곤봉을 하나씩 쥐여주었다. 그 곤봉은 만주국이 발급한 일종의 신임장과 같은것이였다.

혁명군이 라자구에 식량공작을 가는 날은 김룡운이 일부러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청년들만 엄선하여 경비에 내보냈다. 식량공작을 담당한 사람들이 성시주변에 나타나면 경비에 동원된 청년들은 그들에게 곤봉을 넘겨주고 마을에 달려가 백호장의 지휘밑에 쌀을 모아가지고 돌아와 식량공작원들에게 넘겨주곤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혁명조직성원들이 위만군들을 구슬려서 수만발의 탄알까지 뽑아냈다. 그 당시 라자구시내에는 혁명조직에서 운영하는 개인상점이 있었다. 그 상점주인은 오랜 공청일군이였는데 성시에서 혁명군에 보낼 원호물자를 자유롭게 뽑아내가기 위하여 위만군병사들과 결의형제까지 무었다.

(다음호에 계속)



축복받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얼마전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학생소년들의 2026년 설맞이공연에 참가하여 감동깊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음악 무용이야기 《원수님 한품속에 우리 자라요》는 총련애국위업을 떠메고나갈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고 있는 그들의 생활을 예술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은 뜻깊은 설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국의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며 이역의 학생들은 하염없이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그들 속에는 지난해 설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만나주실 때 두불을 다독여주신 니시도쿄 조선제1초중급학교 학생 김유아도 있었다. 그는

이번에 동생과 함께 조국에 왔다. 한낱한시에 너무도 큰 영광을 받아안은 그들은 설날의 감격을 잊을수 없어 일기장들에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써넣었다.

예술단성원들은 조국방문기간 주체사상탑, 개선문을 참관하였으며 문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 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자녀들과 함께 온 학부형들은 나날이 달라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이번 방문은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예술단 단장인 도순조선초급학교 교장 리철수 동포는 조국방문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실에서의 몇십몇백시간의 수업보다도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고 하였다.

글 김슬기, 사진 김영호

인상기

활기있고 명랑하고 대바르게

이번에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이끌고 조국을 방문한것 만도 감격스러운데 꿈결에도 그리고그리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새해 첫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몸가까이에서 뵈웠던것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나는 정말 분간하기 어려웠다.

2026년 설맞이공연에 출연하는 학생소년들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였다.

우리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이 받아안은 영광만도 가슴벅찬데 그이께서는 예술단 주요성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단장인 나의 손을 다시한번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리고나서 총련의 새세대들을 애국위업의 바통을 이어나갈 역군들로 훌륭히 키우라고 당부하시였다.

그이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나는 총련의 새세대들을 활기있고 명랑하고 대바르게 키워나가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재일조선학생소년 예술단 단장 리철수



도교조선제1초중급 학교 학생 안태성

이론 설날



도교조선중고급학교 학생 권소희

지난해 우리 학급동무는 조국에서 진행된 설맞이공연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치니였다.

그때 난 우리모두가 꿈에서도 바라던 소원을 이룬 그 동무가 뭄시 부리웠다.

그러나 이제는 부럽지 않다.

나도 2026년 새해에 소원을 이루었다.

설맞이공연에 참가하는것만도

기쁜데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신다.

지난해 조선소년단창립 79돐 경축행사에 참가하면서 느끼였지만 정말이지 조국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아이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조국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총련의 대를 끗끗이 이어나가겠다.

이 소원이었다.

이번 설날은 소원을 이룬 잊지 못할 날이다.

우리 동무들은 내가 조국에 간다는것을 알고는 저저마다 소원을 이루게 되였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그리고보면 조국에 오면 누구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

모두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조국, 조국을 위해 나는 총련애국위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겠다.



여세계 이어가는 애국의 바통

-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 -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이 애국위업의 바통을 여세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그들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제6차총회를 진행하였다.

총회를 통해 청년협회성원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결성 세대의 애국의 전통을 이어

받아 협회를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애국집단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난 기간 청년협회에서는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체득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과 강습회, 토론회와 해설선전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조국의 역사와 지리, 문화와 풍습을 반영한 시와 노래, 동영상편집물들을 통한 강습회는 동포청년들속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켰다.

협회성원들은 언제나 백두산하늘아래에서 살고있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직을 고수하고 강화발전시켜 나갔으며 이 과정에 적지 않은 회원들이 총련합회의 핵심으로, 든든한 골간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청년협회에서는 독서회,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조국애를 심어주고 있다.



청년협회에서는 여려 국가적명절과 행사를 계기로 축하공연도 진행한다.

지금 이들은 강대한 우리 조국의 위상에 맞게 재중조선 인청년협회를 권위있고 건강 하며 혈기왕성한 조직으로 꾸려나가는데 주력하는 한편 동포들의 민족적리익을 옹호하고 동포대중을 조직의 두리에 둑어세우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것이 동포사회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임을 자각하고 동포청년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노래, 우리



춤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力있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 나날 동포청년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들을 수많이 찾아하였다.

결성세대가 지녔던 애국의 바통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이들의 노력으로 재중조선인청년협회는 동포청년들과 숨결을 같이하고 그들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여가고 있다.

글 및 사진 김성철

인상기



자랑하고 싶은 고국

나는 10년만에 고국을 방문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너무나 천지개벽된 고국의 모습을 직접 보니 기쁨을 금할수 없다.

수도 평양에는 조형미와 현대미를 갖춘 새 거리들과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시, 군들에는 지방공업공장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들에서는 외국의 별장촌을 방불케 하는 새 살림집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이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문화정서생 활기지들 또한 그야말로 세계적준이다.

조선로동당은 이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통채로 안겨주었다.

그러나 해외에는 서방의 그릇된 선전에 눈과 귀가 멀어 고국의 이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동료들과 글포친구들까지 모두 데리고와서 그들에게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나는 고국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싶다.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재중동포 최충삼

《끝나지 않았으면…》

나는 지난해 10월 김일성김정일기금총회-2025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두만강을 건너 고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영광과 행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줄 상상도 못하였었다.

나는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였다.

경축대회와 열병식을 비롯한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나는 초대석에서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감격에 겨워 우러러보았다. 평범한 해외동포인 내가 온 세상이 경모하는 위대하신분을 몸가까이에서 우러르고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러는 나의 입가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절로 자주 흘러나왔다. 이 영광의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였다.

지금 내가 살고있는 중국땅에서는 우리 동포들뿐 아니라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속에서도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흠토심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사는 고국의 인민들이 부럽다.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재중동포 김경립



마음속의 스승

몇 명의 학생을 졸업시켰는가가 아니라 청동부도인 해чин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얼마나 키워 조국 앞에 내세웠는가에 따라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평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양시태권도대학 학장 손정호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손정호는 평양시태권도대학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것인가를 생각하던 손정호의 머리속에 문득 떠오른것은 엄격하면서도 사려깊던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손정호에게 있어서 손익선은 아버지이기 전에 참된 삶의 진리를 깨우쳐준 인생의 스승이였다.

손익선은 199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열린 어느한 국제회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로 참가한적이 있었다.

그는 인류의 머리우에 처음으로 핵참화를 들씌운 미제와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마땅히 과거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것을 자기가 겪은 인생사와 결부하여 사리정연하게 론증하였다.

그는 어린시절 부모들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은 이역땅에서 망국노의 설음을 겪으면서 자랐다.

18살 나던 해 손익선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침략자들에게 끌려 다른 나라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하건만 그를 기다린것은 미제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군 원자탄에 의해 형파 형수, 조카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뿐이였다.

그후 손익선은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권리와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그 나날 손익선은 안해와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이 모셔진 금반지를 선물로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었으며 국가적으로 열리는 대회들에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손익선가정에 베풀어지는 나라의 은덕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12살 난 둘째아들 손정호가 조선체육대학 전문부에 선발되게 되었다. 손익선은 자식을 낳은 친부모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재능의 짹을 찾아 꽂피워주는 나라의 고마움에

가슴이 북받쳐 온밤 잠들지 못 했다고 한다.

어느해인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재정부장으로 사업 하던 삼촌이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조선체육대학 남자송구팀 주장으로 활약하는 손정호를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신통하도 깊은 시절의 네 아버지를 꼭 빼물었구나. 너의 아버지는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조선사람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을 보면 그 어디든 따라가서 호된 주먹맞을 보이군 했어. 그러니 정호야, 일단 체육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아버지처럼 조선 사람의 굳센 자존심을 지니고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

하기에 손정호는 조선체육대학에서 공부할 때에도, 졸업후 대학교단에 섰을 때에도 기술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대학학장으로 임명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는 대학교원력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이 학위학직을 소유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신입교원들도 교육실천에 이바지 할수 있는 학위론문을 집필하도록 적극 밀어주었다. 하여 대학의 많은 교원들이 전공과목의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학위론문들을 발표하게 되였다.

그 과정에 대학에서는 교수의 과학화가 실현되고 강의의 질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학위학직소유자대렬도 늘어나게 되였다.

교원들의 실력이 높아지니 학생들의 실력도 이에 상응하게 올라갔다.

학년별, 학부별학과경연과 외국어발표회를 비롯한 경연들이 월별, 주별로 실속있게 조직되어 대학안에 실력경쟁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손정호의 아버지 손익선은 1995년 12월 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일흔 번째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태권도교육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년간 이 대학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태권도대학부문 학과경연들에서 언제나 우승의 자리를 차지하군 하였다.

이렇듯 대학이 거둔 크고작은 교육사업성과의 근저에는 학장 손정호의 노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손정호는 애국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를 마음속의 스승으로 간주하고 교육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새 보금자리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

조선로동당만





화성4탁아소에서



화성9유치원에서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화성지구에 새로 일떠 선 화성거리, 림홍거리로 취재 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화성지구 3단계공사를 통해 솟아난 현대적인 도시구획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사방을 둘러보며 탄성을 터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시야에 안겨들었던 것이다.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상징성이 강한 특색있는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봉사망들이 조화롭게 배치 되어있는 거리는 건축조형예술과 선진문명이 리상적으로 융합되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었다.

특히 이곳의 상징건물이라고 할수 있는 고가다리형식의 연결봉사망인 화성금강관은 다양한 봉사를 받으면서 거리의 풍치도 부감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인기가 높았다.



새 거리의 학생들

특색있게 꾸려진 화성컴퓨터 오락관도 각계층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한 로인은 손자의 손에 이끌려 왔는데 정말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고, 젊은 시절이 되돌아온것같다고 하면서 화성컴퓨터 오락관은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거리에 나서서 걸음을 옮길 수록 그리고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흥그리워졌다.

이쪽을 보면 특색있게 생긴 화성락원불고기식당과 화성컴퓨터오락관, 저쪽을 보면 아이들의 노래소리 울려나오는 유치원 또 거닐다가 보면 이름도 유정한 화성만복동상점, 화성소백수종합상점이 안겨왔다.

그냥 스쳐지나보내기에는 너무도 웅장하고 아름다워 여기저기서 손전화기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였다. 그들은 건물들이 얼마나 멋있는

지 화성거리, 림홍거리와도 다른 양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지금 화성락원불고기식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것이었다.

우리도 그 일행과 발걸음을 같이하였다.

구이로를 형상한 화성락원불고기식당은 멀리서 보아도 전문불고기식당이라는것이 제격 알리였다.

2층으로 된 식당에서는 불고기들을 봉사하고있었다.

이곳 경리의 말에 의하면 만문한 느낌과 순수한 맛이 자기네 식당료리의 기본특징이라고, 후추가루, 마늘과 같은 조미료들로 불고기감들을 재운 다음 파일나무로 낮은 온도에서 구워서 특이한 맛을 살린다고 한다.

유명한 료리들을 맛보며 웃음발을 날리는 손님들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화성순풍상점 화장품매대에서



화성3꽃방에서

높은 화성9유치원을 찾았다. 모든 방들이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려져있는데 지능놀이실, 운동놀이실 등 여러곳에서 명랑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흥심을 돋구었다.

우리와 만난 리일화원장은

이 구역에만도 유치원이 여러개나 된다고 하면서 한시도 늦추면 안되는것이 교육사업이기에 나라에서는 살림집입사가 끝나자마자 유치원과 학교들의 문을 상업봉사망들보다 먼저 열도록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13구획 12호동에 살

고있는 80고령의 민옥수할머니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할머니는 무상으로 집을 받은것이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이 좋은 제도에서 오래오래 살고싶은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하였다.

정말이지 어느곳에 가보아도 웃음소리 넘치였고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당의 고마움,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격정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수 있었다.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 열마전까지만 하여도 허허벌판이였던 화성지구에 몇해어간에 새거리들이 련이어 솟아났으니 이곳에 고향을 둔 동포들이 아마 여기에 와본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이제 또다시 준공하게 될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파더불어 이곳에서 더 높이 울려 퍼질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뒤에 남기고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강진성
사진 리영철



능력이 큰 건재생산기지

- 천리마타일공장에서 -

천리마타일공장에서 년초부터
현일 생산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리홍림지배인은 《지난해 우리
공장은 높아진 타일생산계획
을 기한전에 완수하였습니다.
이룩된 성과의 요인은 과학기
술을 생산장성의 기본열쇠로 틀
어쥐고나간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장에서는 올해에도 보다
높은 증산목표를 내세운데 맞
게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
면서 새 기술도입에 큰 힘을 넣
고 있다.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이 공
장의 생산능력제고를 위한 기
술개선에서 큰 봇을 맡아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직장의 기능공들
과 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공정
들의 흐름선을 합리적으로 개조
하고 건조로의 능률을 보다 높

일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바닥타일직장과 외
벽타일직장의 가스보장을 위한
관로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유
약직장에 교반기를 비롯한 능률
높은 설비들을 보강함으로써 제
품의 생산성과 질을 높일수 있
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공장의 종업원들은 대중
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 기준, 새 기록을 부단히 창
조해나가고 있다.

공장의 계획수행에서 중요한
봇을 맡고있는 내벽타일2직장의
종업원들은 현대적인 생산공정
들을 새롭게 꾸린데 이어 흐름
선의 능력을 보다 끌어올려 타일생
산량을 매일 계획보다 넘쳐
수행하고 있다.

내벽타일1직장과 바닥타일직
장의 종업원들은 각종 타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맞

게 생산공정을 기동적으로 개조
하는것과 함께 원료들의 특성에
따르는 소성온도곡선과 로조작
기술을 받아들여 설비들의 능력
을 높이였고 제품의 질개선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대리석타일직장, 자기기와직
장, 장식타일직장에서도 종업원
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계발시
켜 생산공정의 원활성을 보장하
고 설비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를 걸고 있다.

원료가공1, 2직장과 원료준비
직장, 가스분공장의 종업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
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타일생
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들을 제
때에 보장하고 있다.

글 김성영
사진 전선일





과학기술을 앞세워

-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

남포시에는 종합적인 유리 생산기지인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있다.

공장에서는 지난 20여년간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강화하여 수많은 판유리와 유리제품들을 생산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최근 공장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유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도를 강질로의 생산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찾았다.

여기서 초점으로 된것이 강질로운영에서 핵심인 PLC조종계통을 개조하는것이였다.

그와 관련한 기술자료나 경험

이 부족하였지만 공장의 일

군들과 기술자들은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이들은 합리적인 조종변수들을 찾아내

기 위한 수십차례의 공정판측

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심화시

키였다.

사색과 탐구과정에 공장의 기술자들은 충격세기와 만곡도를 비롯한 질적지표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조종변수들을 찾았던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기술자들은

로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강질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유리들은 도시와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되고 있다.



글 강진성
사진 김평



지난해 국내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단위 들 중에는 평성 가방 공장도 있다.

2016년 7월에 첫 걸음을 내짚은 공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년간 공장은 전국적인 가방 생산 단위들 가운데서 년간 인민 경제 계획 수행과 제품의 질 제고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이러한 비결을 공장의 기업 관리 방법에서 찾아보게 된다.

주목되는 것은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자체의 기능 공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에서는 고급 기능 공들이 기능이 낮은 노동자들을 2~3명씩 맡아 양성하는 담당제를 실시하고 매월 생산 총화에서 그 정형을 총화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해마다 종업원들의 평균 급수를 0.5급 증성시키는 결과를 안아왔다.

기능 공력량의 강화로 공장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 진행된 인민 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 공경 기대회-2025 재봉 공경 기에서 련이어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해마다 진행되는 학생

생산장성의 비결

- 평성 가방 공장에서 -



공장에서 생산된
가방들은 구매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가방 품평회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 관리 방법에서 다음으로 중시되는 것은 학생 가방들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가방들에 대한 사용자, 수요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는 것이다. 공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가방 도안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제품의 종수를 늘이고 품질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과학 기술에 의거한 증산 절약 운동 역시 공장의 기업 관리에서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공장에서는 가방 생산 공정에서 폐설물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여기에 한 사람 같이 동원되도록 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정보 기술 수단들과 앞선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었으며 노동자들도 기술 기능 제고와 다기 대 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 원단 위 소비 기준을 극력 낮출 수 있는 30여 종에 90여 점에 달하는 각종 지구 및 기공 구들과 10여 건의 새로운 기공 방법들이 창안 도입되었으며 많은 종업원들이 2종 이상의 기대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결과 제품의 질이 개선되고 생산 능률이 높아졌으며 같은 양의 자재로 이전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글 김수정
사진 리철

공장에서 창안한 여러 형태의
가방 도안들의 일부



여러 형태의 가방 도안



여러 가지 학생 가방 도안



독특한 실내건축장식으로



현진건축기술교류소 소장 김철명

매 사람의 기호가 다른 것처럼 요구하는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진》만의 고유한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최근년간 건축장식분야에서 련진건축기술교류소의 이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단위에서는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에 일떠선 명사십리극장과 여러 대상들의 천정시공을 롤색재료로 특색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살림집, 사무실, 봉사 건물의 건축장식에서 소문을 내고 있다.

2017년에 첫걸음을 내짚은 교류소에서는 《현진》이라는 자기 단위의 명칭에 끊임없는 전진과 도약을 변함없는 원칙으로 내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설계, 시공, 제작 등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공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롤색재료들과 건축에서 조형성, 예술성을 완벽하게 실현할수 있는 여러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당김식수지천정에 의한 건축방식이다.

천정시공에서 당김식수지천정에 의한 건축방식을 도입하면 다른 공정이 없이 로력, 시간,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그 미를 더 살릴수 있다.

교류소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당김식수지천정뿐 아니라 기능성재료인 GRG재료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시공자들이 의도하는 조형들을 원만히 실현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미감파

현대적추세, 대상별 특성에 맞게 살림집 및 공공건물의 실내형성안들에도 품을 넣고 있다.

이곳 설계가들은 20대, 30대의 쟁쟁한 실력가들이며 미술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어 자그마한 세부장식 하나에도 조형예술성이 살아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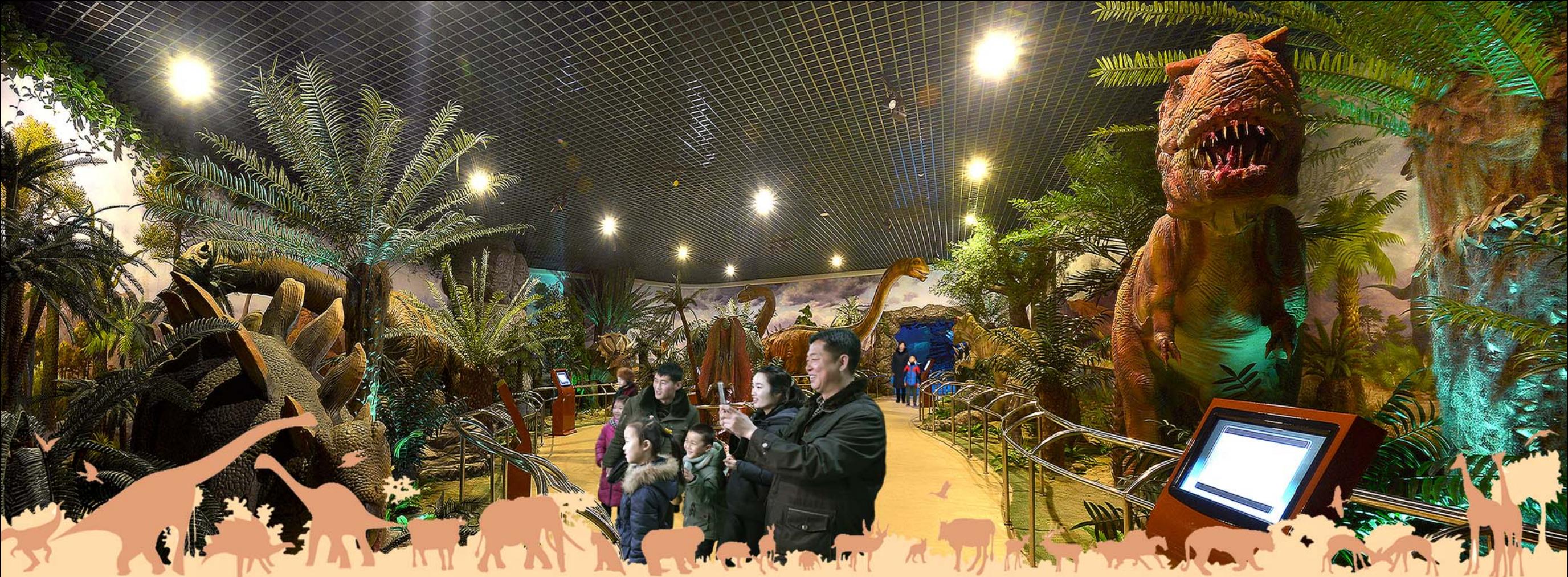
교류소에서는 각종 기능성가구들도 제작하고 있는데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착상이 기발한것으로 하여 주문이 끊길줄 모른다.

주문과 계약이 계속될수록 《현진》은 사람들의 인식속에 더 깊이 자리잡고 있다.

글 엄향십
사진 김영호

현진건축기술교류소에서 설계한 살림집 및 공공건물 실내형성안들의 일부





대성산기슭의 자연과학지식보급기지



풍치수려한 평양의 대성산 기슭에 자연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 박물관은 2016년 7월에

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보급하며 국내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와의 학술교류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과학지식보급기지로 꾸려졌다.

연건축면적이 수만m²에 달하는 자연박물관은 우주관, 고생

물관, 동물관, 식물관을 비롯하여 여러 전시관들과 선물관, 전자열람실, 어린이 학습 및 체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의 중앙홀에는 태고의 지구모습그대로 용암이 이글거리며 끓고 있는 한가운데에 상상속에서만 그려보던 3마리의 거대한 공룡골격모형이 실지 크기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맑은 하늘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지붕아래 익룡모형들이 날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시간을 거슬러

《파충류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중생대시기로 되돌아간것만 같은 기이한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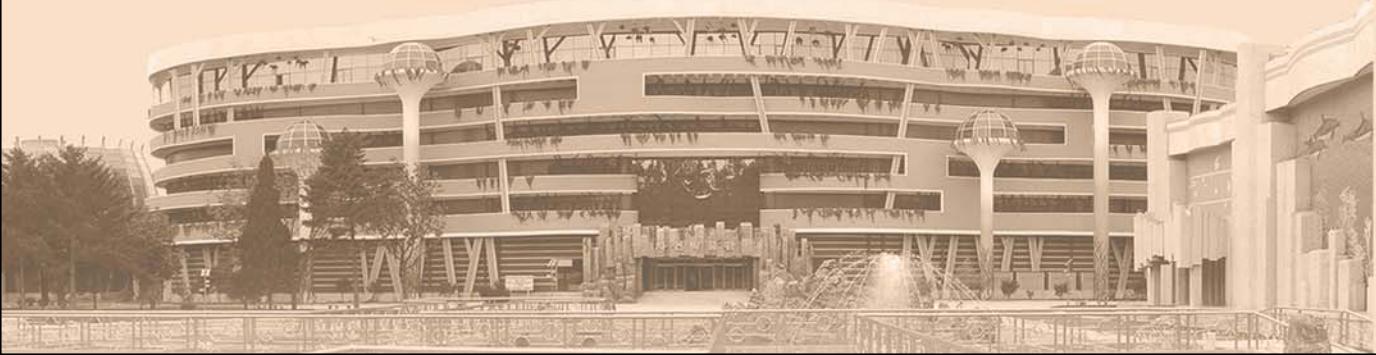
자연박물관에서 인기가 높은 곳은 우주의 진화, 태양계의 형성, 태양이 지구에 주는 영향, 시간과 날자 등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우주관이다.

특히 지구의 형성과정,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의 운동, 별자리 등을 보여주는 천체관람실과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느낌을 자아내는 대형바닥현시장치는 참관자들의 주목

을 끌고있다.

고조선시기의 여러가지 별자리들이 새겨진 고인돌무덤의 뚜껑들,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 기초하여 만든 천문도인 《천상렬차분야지도》, 해시계 《앙부일구》를 비롯한 천문유산들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물의 발생과 진화, 인류의 발생을 보여주는 고생물관은 시생초대 및 원생초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획지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바다에서 자체로 빛합성을 하며 산 첫 단 세포동물의 출현으로부터 인류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모든 진화과정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평양시의 모란봉에서 발굴된 규화목화석과 조선시조새화석, 백토새화석, 꼭지이발코끼리화석에 기초하여 복원한 모형과 헬코끼리화석에 기초하여 만든 축소모형 등이었다.

이곳 학술연구원 정영태실장은 해당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과 함께 인류화석들이 수없이 발굴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라는 것을 실증하여준다고 하였다.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은 즐겨 찾는 동물관과 식물관에는 지구상에서 이미 멸종되었거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다양하면서도 희귀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박제품과 표본 등으로 전시되어 있다.

강사 김경미의 말에 의하면

분류별로 체계화하여 생동하게 전시한 동식물표본들과 박제품 등을 보기도 하고 손접촉식 컴퓨터를 통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종류와 생태, 분포, 보호에 대해서도 열람하니 참관자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최근년간에 새롭게 꾸려진 열대산림초원의 동식물상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주는 동물생태홀과 어린이학습 및 체

험실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수많은 생물표본들과 함께 다매체편집물을 시청할수 있는 액정TV가 갖추어져있는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1)에서는 학생들이 교원이나 자연박물관 연구사,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지도밑에 문답,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 등에 대한 학습을 진행

하고 있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2)에서는 참관자들이 다양한 직관물들과 식물표본, 채집도구, 유화기재 등을 리용하여 해당 부문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지고 록 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은 화석찾아보기, 나의 동물친구, 동물과의 힘겨루기, 동식물알아맞추기, 우주탐험구역들에 들어서면 시

간가는줄 모르고 있다.

이곳 봉사일군인 김은조는 화석찾아보기는 각이한 지질시대에 살았던 동식물들의 화석을 여러 도구를 리용하여 《발굴》해보는것인데 학생들은 실지 동작으로 직접 찾아도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배운 지식을 다지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동식물알아맞추기를 자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짐승과 새, 꽃과 나무의 그림을 보고 그 이름과 생태적 특성을 조리있게 이야기 할줄 아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하였다.

사시장철 이곳으로는 각계 층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오고 있다.

글 강려은
사진 리석





다양한 소조활동으로

- 서성구역 장경소학교에서 -

평양시에 있는 서성구역 장경소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파외소조운영을 잘하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학교에서 운영되는 소조는 음악, 무용, 글짓기소조 등 몇개 되지 않았다고 한다.

소학교시기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취미, 희망에 따라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펼치도록 하는데서 파외소조운영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교장 최일숙, 부교장 김정란을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파외소조들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먼저 교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료해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여러가지 소질과 재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보다 세분화된 소조들을 조직하였다.

다음으로 교원들이 소조별에 따르는 과정안을 작성한데 기

초하여 방법론을 가지고 소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1, 2학년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개성에 따라 속산소조와 축구소조를 비롯한 여러 소조들에 다니도록 하고 3학년단계에서는 자기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소조들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4, 5학년단계에서는 매 학생들의 재능을 충분히 키워줄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하게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기간에 학생들이 자기 소질에 맞는 파외소조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학생들이 자기 취미에 맞는 소조들에서 한가지이상의 재능을 꽂을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소조운영과정에 쌓은 경험들에 기초하여 더 좋은 방법들을 탐구하고 일반화하는것과 함께 그

질적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로보트교육방법도 그중의 하나이다.

지능계발 및 로보트소조지도 교원인 강명희는 《최근에 여러 분야의 지식을 출수 있는 종합적이고 우수한 교육으로 인정되고있으며 현대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교육방법으로 평가되고있는 로보트교육을 도입하면서부터 소조원들의 지능계발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소조에서는 소학교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로보트조립과 관련한 기초교육을 주고 이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3~4명이 한 조가 되여 각종 로보트를 조립하고 그것들의 정확한 운동에 대한 경쟁 및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소조원들의 지능계발능

력과 협조정신을 키우는데 힘을 넣고있다.

직접 착상과 설계, 조립을 하고 조종까지 해보는 과정에 소조원들속에서는 착상력과 사고력이 계발되고 응용능력과 협동능력, 분석능력이 높아지고있다. 하여 이 소조는 학생들속에서 인기있는 소조로 되고있다.

현재 이 학교에서는 속산소조, 글짓기소조, 화술소조, 외국어소조, 축구소조, 탁구소조, 무용소조 등 30여개의 파외소조가 활발히 운영되고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소조활동을 통하여 그 어떤 파목이든 자기도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꽂고있다.

글 김대철
사진 김강무





수요높은 《신진》의료기구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 성과전시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초점을 모은 제품들이 있었다.

신진기술교류소 신진의료기구생산소에서 개발하여 내놓은 전자화상위내시경, 전자화상대장경, 전자화상복강경을 비롯한 각종 지능형내시경들과 휴대용치과렌트ген, 이동식렌트겐이였다.

국내의 원료와 자재로 생산되고 전자화상체계가 도입된 의료기구들은 구조가 경량화되고 가격이 낮으며 성능이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높은 빛세기와 선명한 화상, 정확한 진단효과와 원만한 수술효과 등 기술적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여 제품들은 전시회에서 1등으로 평가되었다.

전시회이후로 수요가 급증하여 《신진》의료기구들은 전국의 병원들에 도입되였으며 림상실천에서 큰 은을 내고 있다.

지난 기간 생산소는 원가저하, 기술발전을 일관한 경영원칙으로 내세우고 연구와 개발, 생산을 적극 내밀어 왔다.

내시경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과학기술적토대에 근거하여 지난 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구집단은 보다 발전적인 걸음을 내짚게 되었다.

연구사들은 초고해상도화상전송장치와 높은 빛세기를 보장하는 휴대용광원장치, 지능형구동장치 등을 국내의 원료와 자재, 기술로 만들어



소장 오성혁(가운데)

구들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라고 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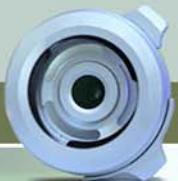
개발후에는 림상실천을 통하여 의료기구들의 기술적, 경제적우월성을 확증하였다.

소장 오성혁은 《부단한 개신을 떠난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연구에 주력하여 보다 선진적인 의료기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신진의료기구생산소에서 개발한 전자화상위내시경, 전자현미경, 4K초고해상도화상전송장치를 비롯한 의료기구들의 일부





박사 부부

평천구역 복성1동 88인민번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부가 있다. 그들이 바로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박사 장용남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과장 박사 부교수 렘선희이다.

이들부부는 나이가 예순살이 지난 다음에 박사학위들을 받았다.

《뭐 딱히 박사가 되겠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세대주인 장용남은 서두를 냈다.

조선화표구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장용남박사는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창작단에서 오랜

기간 일군으로 사업하고 있다. 그가 조선화표구에 눈길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

예로부터 조선화작품에서 그림과 표구와의 관계를론할 때 《3분화, 7분표》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조선화작품을 완성하는데서 표구의 몫이

70%를 차지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림이 아무리 잘되

였어도 표구를 잘하지 못하면 작품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만큼 표구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더해주고 품위를 돋구는데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창작가들이 그림창작에는 관심을 돌리면서도 표구에는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 있었다.

표구는 그림의 보존과 수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표구유산에 기초하여 리론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사업을 스스로 맡아 진행하였다.

하나의 학문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수많은 화가들과 표구사

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혁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표구 유산들도 찾아냈다. 표구에 쓰이는 풀을 만드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배접 등 여러 공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 새로운 표구풀제조방법을 내놓아 발명증서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표구기술과 관련한 다른 나라 도서, 자료들을 수많이 구입하고 연구분석하는데도 품을 들이였다. 자료작업에만도 10년이 걸리였다.

《말이 10년이지 더 많은 세월이 연구사업에 고여졌습니다. 한번은 내가 세대주를 보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 일에서 손을 뗄는것이 어떤가고 물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우리의 것을 더 빛내이는 사업에는 네일, 내일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안해는 말하였다.

장용남박사는 평양미술대학 전문가들파의 꾸준한 련계밀에 전통적인 표구형태들인 족자, 가로말이, 액자, 병풍, 서화첩

을 교전형식과 현대형식에 따르는 100여 가지의 류형으로 분류, 확정하였다.

할일은 방대하였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도서 《조선화표구》와 《조선화표구독본》, 《표구상식》 등을 집필하였다.

그의 연구성과는 그대로 박사론문으로 완성되게 되었다.

어느한 전문기관에서 검정한 데 의하면 장용남박사가 연구한 표구방법으로 조선화표구를 만들면 그 수명은 수백년 담보할 수 있다고 한다.

미술계에서 장용남박사의 성과를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때마다 그는 자기의 박사메달에는 말없이 자기를 도와준 안해의 수고가깃들어 있다고 하였다.

안해인 렘선희과장은 병원적으로 인정미가 많고 의술이 높기로 소문이 났다.

그는 남편의 일을 적극 뒤받침하면서도 림상치료와 연구사업에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 나날 알레르기성폐부질병, 감염성폐부질병을 비롯한 각이

한 질병에 따르는 치료방법들을 학습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치료기구개발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하여 많은 환자들의 얼굴에 웃음을 안겨주었으며 최중증환자들에게도 소생의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많은 학위소유자들을 키워내여 2020년에 부교수의 학직을 받은 그는 피부질병치료에서 새로운 방법을 개척한것으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게 되였다.

박사학위를 받던 날 세대주는 누구보다도 제일 기뻐하며 안해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이들부부는 지난 기간 국가적인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였다.

오늘도 박사부부는 애국이라는 하나의 지향을 안고 서로돕고 이끌며 자식들의 본보기로,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삶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 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성철



장용남(왼쪽으로부터 세 번째)은 표구의 품위를 돌구기 위해 연구사들과 자주 토론을 진행한다.



렘선희(왼쪽으로부터 두 번째)는 언제나 높은 실력으로 과안의 의사들을 이끌어준다.



누구나 즐겨 찾는 사진관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보통강열광경제기술교류소 사진관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

사진관에서는 봉사의 질을 높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이곳의 단골손님인 보통강구역 운하동에서 살고 있는 김혜숙은 아들, 딸들의 결혼식 사진과 가족사진을 모두 이곳에서 찍었는데 사진들이 립체감이 나

고 색채가 매우 부드럽다고, 앞으로 태여나게 될 손주의 돌생일 사진도 여기서 찍겠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손님들이 이 사진관을 즐겨 찾는 이유는 우선 봉사환경이 현대적이면서도 다양하게 꾸려진 것이다.

2층과 3층으로 나뉘어 100여 개의 구획으로 되어있는 촬영장은 세련미가 나면서도 아늑한 정서가 느껴지는 각이한 생활환

경들을 펼쳐보이고 있다.

촬영장은 사계절의 자연환경보다는 주로 온화하고 따뜻한 가정적 분위기, 실내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진관에서는 또한 분장, 사진촬영, 편집기술을 높여 봉사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

『제일 선차적인 공정인 분장에서 얼마만큼 미적 효과를 살려내는가에 따라 사진의 질감이

달라지게 됩니다.』라고 분장사 김은경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얼굴의 조형미를 살리는데서 명암처리가 기본이라고 하면서 이 기술은 생김새에 따라 결함을 가리워주고 바라는 형태를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하였다.

한 신부는 이곳의 수준있는 분장으로 자기의 모습이 보다 세련되고 아름다워졌다고 기뻐 하였으며 사진을 찾는 손님들마

다 실물보다 더 환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였다.

이곳의 사진사, 촬영가들은 각이한 인물들의 특성에 맞게 개성적인 성격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미흡한 점들을 최대로 감소시키기 위한 촬영조직과 함께 빛의 특성을 효과적으로利用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화폭을 창작하고 있다.

한편 인물과 배경, 주위환경의 관계를 구도적으로 잘 맺어 주어 사진의 주제적 특성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두드러지게 살아나게 하는 것도 이곳 사진봉사의 특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진관에서는 각이한 형태

의 사진을 손님들의 요구대로 더 잘 만들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다.

분장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미흡한 점을 찾아 손색 없이 특징을 살려가는 이들의 섬세한 편집기술은 손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봉사환경을 부단히 개선하고 손님들의 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많은 손님들이 이 사진관의 단골로 되고 있다.

글 강소현
사진 김강무

세계자연공원

백두산천지 (6)



백두산천지

백두산천지는 천년기대분출후에 화산체가 함몰되어 생긴 분화구에 물이 채워져 형성되었다.

지구상에는 화산도 수없이 많고 자연의 힘에 의하여 생겨난 호수도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백두산천지와 같이 2 750m나 되는 높은 산꼭대기의 분화구자리에 생긴 크고 깊은 호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백두산천지야말로 만방에 그 이름 떨치는 조선의 자랑이다.

백두산천지의 기반암은 조면암, 현무암, 류문암, 응회암으로 되어있고 천지의 밑바닥에는 자갈, 모래, 감탕 등이 깔려있다. 천지에 차있는 물의 기본원천은 대기강수와 천지바닥에서 나오는 지하수이다.

우리 나라 자연호수들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제일 깊고 물량이 제일 많은 호수이다. 천지물면의 해발높이는 2 190. 15m이며 면적은 9. 16km², 둘레의 길이는 14. 4km나 된다. 최대물깊이는 384m, 평균물깊이는 213. 3m이며 물량은 19억 5 500만m³에 달한다.

천지의 물은 한해에 7개월동안 얼어있으며 얼음두께는 1. 5m정도이다. 물의 맑음도는 16m이다. 특이한것은 천지의 물면이 년중 약 1. 6m높이로 오르내리는것이다.

백두산천지물은 맑고 깨끗할뿐 아니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포함되어있다.

천지가 형성됨으로 하여 백두산화산분화구안에 독특한 고산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신기한 자연현상들이 펼쳐지게 되였다.

백두산천지는 1980년 1월에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등록되어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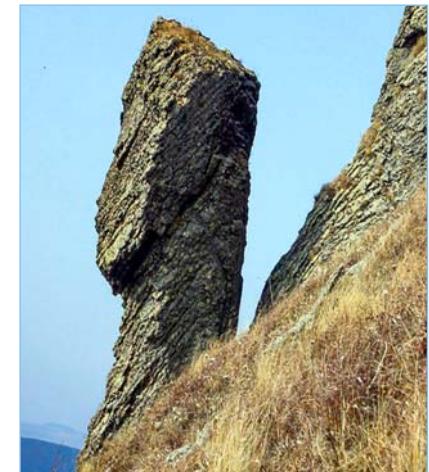
소백산기암

소백산은 북서방향의 백두산심부단렬대와 북동계렬의 소백산단렬대가 사귀는 곳에서 형성된 화산이다. 해발높이는 2 171m 정도이고 상대높이는 690m정도이다. 산중턱에는 화산체설암들도 있으며 꼭대기에는 분화구자리가 우뚝하게 패여있다. 암갈색의 조면영안암질광재암으로 되여있는 소백산은 여러가지 모양의 기암들을 가지고 있다.

소백산의 기암들은 간백산에서 남동쪽으로 4. 2km 떨어져 있는 소백산화산체의 경사면에 놓여있다.

이 기암들은 화산체가 풍화과정에 기묘하게 침식되어 형성되었다.

간백산소금바위와 중암산기암, 소백산기암은 소백산화산무리의 화산분출작용특성연구에서 의의가 있다.



화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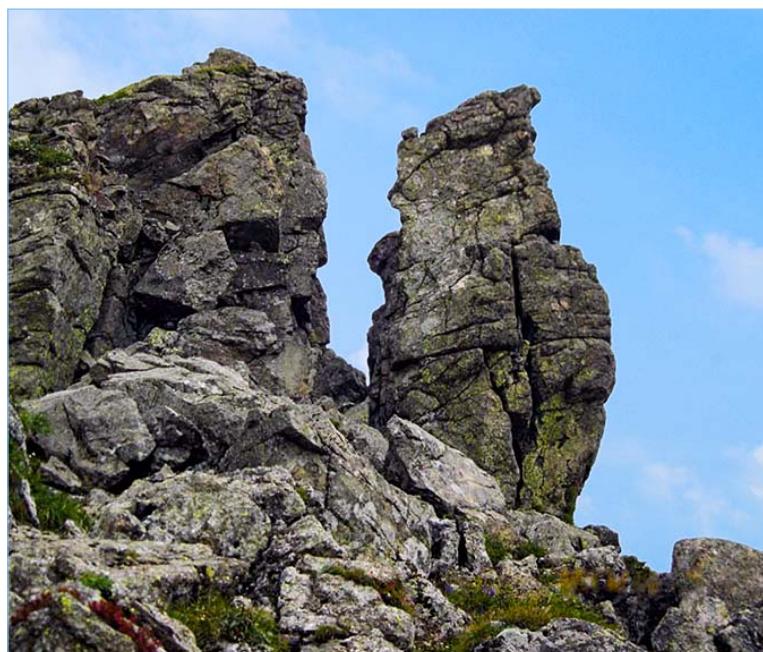
화산탄은 화산이 분출할 때 생기는 형태와 구조가 특수한 용암파편으로서 크기는 각이하다.

모양은 둑근 모양, 방주모양, 판대기모양 등 여러가지이며 겉면은 치밀하고 약간 터져있으며 안에는 구멍이 많다.

화산탄은 조면암파 준알카리계렬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알카리계렬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탄은 백두산천지 부석총상부에서 어두운색을 띤 빵모양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준알카리현무암질암장이 폭발될 때 공중으로 날렸다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굳어진 것이다.

화산탄은 화산활동의 산물로서 용암의 성질과 분출작용특성 연구에서 의의가 있으며 화산지형관광의 좋은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설명절풍습



백두온천

백두온천은 백두산화산체아래의 땅속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화산성 가스에 의해 지하수가 가열되어 솟아오르는 화산성온천으로서 수소탄산나트리움천이다.

백두온천은 1984년 1월 21일에 천지에서 발견되었다. 백두온천구역은 호안을 따라 천지에 띠모양으로 놓여있으며 길이가 약 930m이고 너비가 10~15m이다. 용출구역은 용출량이 비교적 많은 구역과 적은 구역으로 가르는데 구역에는 3개의 뚜렷한 용출구가 있다.

온천의 광물질총량은 2. 3g/L, 유리탄산은 382. 80mg/L, 메타규산은 294. 68mg/L이다. 주요이온성분들은 나트리움이온과 수소탄산이온들이며 이밖에 류산이온, 염소이온들이 약간씩

들어있다. 류화수소성분은 전혀 없다. 백두온천의 돌들에는 흰 앙금이 많이 앉는데 이것은 수소탄산나트리움이 많기 때문이다. pH는 7. 4이며 물온도는 용출구에서 평균 53°C, 최고 73°C 정도이다.



천지백사장

백두산화산에서 분출한 화산쇄설물들이 백두산천지의 파도작용에 의하여 천지호안에 모여 마치 바다가 모래불처럼 보이는 곳이다.

천지백사장은 백두산천지의 동쪽기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천지백사장에서 주변산쪽으로는 바다자리호와 같은 호수가 형성되어 천지백사장을 걸어가느라면 마치 바다가에 온듯한 느낌을 받는다.

다른 화산분화구호수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다고 하여 떡국차례라고도 하였다.

세배는 자손들이 집안의 웃 사람순서로 차례차례 머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하였으며 그다음에는 마을의 웃어른들, 친척집의 웃사람들, 스승들에게 하였다.

설은 고유한 우리 말로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아침을 맞는 명절(음력 1월 1일)이다.

우리 인민의 고상한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있는 설명절풍습은 크게 차례와 세배, 설빔파세찬, 여러가지 민속놀이 등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 인민은 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설날이 가까와오면 집집마다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고 설음식 등을 마련하였다.

우리 인민은 설날 새벽에 먼저 돌아간 조상들에게 드리는 설인사와 같은것으로서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제사)를 지내였다. 여기에 떡국이 반드시 오른

만들어먹었다. 떡국은 찡고기를 넣고 끓이는것이 제격이지만 찡이 없는 경우에는 닭고기를 대신 쓰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꿩대신닭》이라는 말은 이것을 넘두에 두고 쓰이는것이다.

설날에 먹는 명절음식을 세찬이라고 하였다. 우리 인민은 찰떡, 설기떡, 절편 등과 여러 가지 지짐, 떡국, 탕, 만두국, 산적, 강정, 야파, 수정파, 식혜 등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여앉아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여 즐겁게 들었으며 이웃들파도 나누어먹었다.

설명절분위기를 더욱 돋군것은 민속놀이였다.

민속놀이로는 육놀이, 널뛰기, 연떡우기, 썰매타기 등이 있었다.

설명절옷을 설빔 또는 세장이라고 하였다. 가정들에서는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미 준비하였던 새옷을 갈아입었다.

설날에 명절음식으로 떡국을



운동과 관련하여 주의할 절 몇가지

- 준비운동을 하지 않는것
- 일정한 계획이 없이 중량물들기를 하는것
- 갑자기 오랜 시간 운동하는것
- 운동한 후 찬 음료를 마시는것
- 운동한 후 인차 식사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것

* * *



쑥떡에 깃든 사연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리에는 쑥골이라고 부르는 오붓한 마을이 있다.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는 봄이 오면 푸른빛에 은빛이 도는 쑥들이 마을의 들판과 밭두둑들에 뒤덮여 봄철은 물론 여름, 가을까지 짙은 쑥향 기운에 묻혀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을 쑥골이라고도 하고 쑥떡을 많이 빚어먹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떡섬이라고도 하여왔는데 여기에는 쑥으로 떡을 빚어먹게 된 한녀인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아득히 먼 옛날 쑥골에는 솔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솔메는 아련하면서 어여쁘게 생긴 걸모습과는 달리 마음은 매우 강직하였다.

그가 처녀꼴이 잡히기 시작하자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망울처럼 아름다운 그 모습에 반하여 사방에서 그의 집 문돌찌귀에 불이 일도록 청혼이 들어왔다.

하지만 솔메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모든 청혼을 거절하곤 하였다.

부모들이 그에게 좋은 혼인감을 놓친다고 꾸지람할 때마다 솔메는 방그레 웃으며 《저와 한생 뜻을 같이해야 할 사람인데 제 마음에 들어야 할게 아니오이까? 부모님들은 넘려마소이다.》라고 대답하곤 하였다.

이 시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외적들이 우리 나라를 침범하여 쑥골로 향해 쳐들어온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접하자 쑥골마을 좌상인 솔메아버지는 즉시 마을장정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외적을 맞받아 싸움터로 달려갔다.

솔메는 마을의 부녀들과 함께 전장으로 보낼 식량과 음식을 마련하느라 몸을 아끼지 않고 분주히 뛰여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해질무렵이였다.

저녁연기가 피여오르는 마을의 동구길로 전령 군사(령을 전달하는 군사)가 탄 말이 요란한 말발굽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솔메네 집앞에 멈춰서는 것이였다.

《좌상어른의 소식을 가지고왔소이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솔메는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며 웨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썬쩍하였다.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

그는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으나 마음을 다잡으며 문을 열고 나섰다.

문밖에는 부리부리한 눈과 우뚝한 코, 훤히 한 키와 빠그려진 어깨로 하여 첫눈에 헌현장부로 안겨오는 낯모를 군사가 서있었다.

《무슨 일로?...》

솔메가 의아한 눈길을 던지자 전령군사는 품 속에서 서신 한장을 꺼내여 그에게 내밀며 목메인 소리로 말하였다.

《좌상어른이 오늘 외적을 몰아내는 싸움의 선두에서 싸우다가 그만 적의 칼에 맞고 쓰러졌는데 마지막 힘을 다하여 써보낸 서신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솔메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들고 황황히 글줄을 더듬었다.

《솔메야, 이 아버지를 죽인 외적들을 절대로 잊지 말여라. 그리고 이 소식을 가지고가는 범이는 좋은 짧은이이다. ...》

《아버지!...》

솔메는 아버지를 목메여부르며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렸다.

한동안 설분을 토하고나서 솔메는 피로 얼룩진 아버지의 서신을 다시 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리자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곧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남긴 부탁을 절대로 잊지 않겠사와요.)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솟구치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잠시후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말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간 솔메는 《호오옹—》하고 투레질하는 살이 진 준마를 끌고나와 슬픔에 잠겨있는 군사에게 고삐를 넘겨주었다.

《제가 집에서 키우던 준마예요. 저는 아버지

의 마지막당부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였으니 부디 이 준마를 받아주시와요.》

《아니? 이거...》

처녀의 갑작스런 행동에 어리둥절해진 범이는 얼굴이 수수며처럼 벌개져 그냥 서있기만 하였다.

《아버지가 남기고간 원한을 제 봇까지 합쳐 꼭 풀어주기 바라나이다.》

《솔메!》

그제서야 솔메의 깊은 마음과 결심을 알게 된 범이는 가슴이 뜨거워져 그의 두손을 꼭 감싸쥐였다.

당시 외적의 침입이 잦은 때여서 쑥골마을에서는 처녀들이 좋은 말을 길러두었다가 혼인할 총각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다.

솔메가 정성껏 길러오던 준마를 범이에게 넘겨준것도 결국은 아버지의 마지막의 향을 받아들일 결심을 가지고 그에게 혼인할 뜻을 표시한 것이였다.

범이는 쑥골의 막바지인 산기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이름난 사냥꾼이었던 아버지를닮아서인지 범이는 힘이 장사였으며 특히 창던지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솔메의 뜨거운 사랑과 굳은 결심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다시 싸움터로 달려나간 범이는 창을 추켜들고 외적의 무리를 삼대베듯 쓰러눕히였다.

이렇게 전장에서 여려달 싸움에만 몰두하던 범이의 몸이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갔다. 어렸을 때 않았던 속병이 다시 도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솔메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며 그가 돌아오면 병을 꼭 고쳐주어 남아의 품위를 모릅니다 다시 갖추게 하리라 결심하였다.

얼마후 외적을 물리치고 마을의 장정들이 돌아오자 쑥골마을 사람들은 솔메와 범이의 혼례식을 성의껏 차려주었다.

혼례식에 참가한 이웃들은 장부의 기골에 맞지 않게 병색이 짙은 범이를 보고는 모두 혀를 차며 가슴아파하였다.

범이를 두고 걱정하는 녀인들의 말을 들으며 솔메는 남편의 병을 꼭 고쳐주고 건강한 무사로 보란듯이 내세우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의 병을 하루빨

리 고쳐주리라 다짐한 솔메의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약도 지어다주고 약초를 캐여다 달여주면서 지성을 다하였지만 남편의 병세는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날이 가고 달이 훌려 솔메는 아이어 머니가 되었다. 아이를 돌보기도 험치 않은데다 몇년째 가물과 큰물로 흥년이 겹쳐들다나니 솔메는 집생활을 꾸려나가기가몹시 힘들었다.

솔메는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집안살림살이를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의 속병을 치료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새벽별을 이고 밭에 나갔다가 저녁별을 이고 들어오며 곡식을 심어가꾸었고 짬짬이 길쌈도 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솔메는 남편의 속탈에 좋다는 약재를 캐다가 달여주는 일을 어느 하루도 벌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병세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몸은 더 약해만졌다.

솔메는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팠다.

더구나 요즘 다시 외적들이 쳐들어와 쑥골마을장정들모두가 싸움터로 달려나가는 때에 뜻뜻하게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지 못하는것이 죄스러워 솔메는 이웃들 보기가몹시 괴로웠다.

(하루빨리 남편의 병을 털어버려야 전장에도 나갈수 있겠는데. 아마도 아직 내 성의가 하늘을 감동시킬만큼 크지 못한 모양이야. 이젠 무슨 약을 써봐야 할가.)

솔메는 자나깨나 언제나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느날 솔메는 고개너머에 있는 친정집을 다녀온 이웃집녀인에게서 속병에 쑥이 좋다는 말을 전해듣고 쑥을 뜯어다 남편에게 달여주었다.

쑥물로 한 열흘간 치료해보니 약간 차도가 보이는듯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쑥물에 큰 기대를 가졌던 솔메는 실망하고 말았다.

(쑥골에 흔하디흔한 쑥인데 그게 무슨 약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솔메는 다시 다른 약재를 얻기 위하여 여러곳으로 뛰여다녔다.

(다음호에 계속)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묘향산 상원동의 겨울/문은남



1-26088046344